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과 식품안전 역량 비교 연구*

Comparisons of Food Safety Perception and Competency between Korean, Chinese, and
American Consumers

Hyun Jung Yoo**, So Hyun Joo***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52 Naesudong-ro, Heungduk-gu,
Cheongju, Korea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Abstract

Living in a globalizing society, securing food safety requires collaborations among the various trading partner countries. The food safety level of a country depends on the food self-sufficiency level, domestic consumers' preferences as well as the food safety level of its trading partner countries. To better understand food safety in a society, it is useful to examine food safety issues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consumer food safety perceptions and competencies of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United States. From an online survey of 2,000 consumers from the three countries(1,000 Korean, 500 Chinese, and 500 American consumers), the food safety perception and competency were measured. Among the three countries, American consumers' food safety levels were the highest and Chinese consumers food safety competencies were the highest. Americans perceive the food in their country are generally safe and Chinese consumers' food safety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were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A-C00007).

** Tel. +82-43-261-2728. E-mail. yoojh@chungbuk.ac.k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3277-3099. E-mail. sohyunjoo@ewha.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Aug. 19, 2014 / Revised: Oct. 21, 2014 / Accepted: Oct. 28, 2014

food safety perception score for all three countries. The findings also showed differences in better than the other two countries. Food safety competency level scores were higher than the food safe perception on a item-base among the three countries. It is found that the food safety issue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ety's current issue, culture, and social system. The research also examined food safety perception and competencies based o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The factors that related to food safety perception and competencies were also identified.

Key words: food safety perception, food safety competency, Korean, Chinese, and American consumers, cross-cultural comparison, food safety issues

국문초록

글로벌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의 자국 내 노력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특히 식품안전의 분야에서는 각국이 처해있는 식량의 해외의존도와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 장벽 없는 무역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식품안전 상황 뿐 아니라 교류하고 있는 해외의 식품안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식품안전의 수준과 소비자의 주체적인 능력으로서 식품안전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1,000명), 미국(500명), 중국(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2년 10월~11월에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과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과 식품안전 역량이 사회적인 시스템, 식품을 둘러싼 환경, 식품이 유통되는 문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중국, 미국 모두 식품안전 체감수준이 식품안전 역량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 태도, 기능의 수준이 사회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체감수준과 식품안전 역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영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 및 역량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식생활 관련 분야의 교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식품안전체감, 식품안전역량,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 비교연구, 식품안전이슈

I. 서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스캔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스캔들 중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소비자에게만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 발생하였으나 국내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2005년에 발생한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사건이나, 2008년의 멜라민 사건, 광우병 쇠고기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점차 철폐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중국, 미국의 3국은 식품분야 교류가 향후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 자명하며 한국, 중국, 및 미국 소비자의 식탁에 서로의 나라에서 수입된 식품이 흔하게 공급되게 될 것이다.

식생활은 소비자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식품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요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히 소비자의 권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식품관련 스캔들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온 상황에서 중국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연구가 존재한다(Wu, *et. al.*, 2011). 또한 한국은 식량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해외원산지 식품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국도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테일리, 2013. 5. 27)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도는 중요한 소비자 이슈이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의 일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정보를 탐색하고 신중히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에는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문제해결 노력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과 소비자의 능력에 대한 향상도 필수적이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안전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 스스로도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글로벌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 수준과 역량을 비교하고 분석한다면 특정 사회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목표달성 및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의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확대에 따른 소비자안전이슈의 국제화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와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식품안전 체감도와 식품안전 역량수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각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도나 역량수준은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소비자의 체감과 역량을 비교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스템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좀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연구

1) 안전체감 과 안전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최근 관련 선행연구도 급증하였다. 특히 안전의 개념이 객관적 개념이 아닌 주관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안전의 수준을 의미하는 안전체감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소비자 안전체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평가하는 소비자안전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①전반적 식품안전의식, ②식품생산 및 유통관련 안전, ③식품안전 정책 및 행정, ④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⑤식품표시 신뢰도, ⑥식품위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구성된다.

Sandman(1987)에 의하면 위험은 위해(hazard)에 심리요인(outrage)이 더해진 개념으로서 일상생활의 위해로 인해 발생하는 종속변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위해란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객관적 위험의 크기라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요인이란 소비자의 자발성여부, 통제가능성, 친밀도, 두려움의 정도, 정보원천의 신뢰성, 대처가능성 등에 따라 나타나는 두려움이나 공포, 분노 등의 감정의 총체를 말한다.

사람들은 어떤 위험 상황에서는 잘 견디고, 어떤 위험에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이 생소하고, 즉각적이며, 두려움이나 대재앙의 요소를 포함한다면 큰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것이며, 이미 익숙해 있는 위험이거나, 천천히 발생하는 경우, 혹은 간접적인 위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느긋하고 침착하게 반응하게 된다(유현정 외, 2011).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 및 역량척도를 개발한 유현정·주소현(2012)에 의하면, 소비자 안전체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평가하는 소비자안전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①전반적 식품안전의식, ②식품생산 및 유통관련 안전, ③식품안전 정책 및 행정, ④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⑤식품표시 신뢰도, ⑥식품위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구성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스스로 안전하기위해 노력하는가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식품안전역량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송유진·유현정(2008)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추구행동을 정보탐색단계와 상품선택단계, 상품사용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정보탐색단계의 행동으로는 판매자 문의, 유기농식품탐색, 유전자변형식품 탐색 등의 행동을 포함시켰다. 상품사용단계의 행동으로는 국내산 식품구매, 유기농식품구매, 원산지 탐색 등이 포함되며, 상품사용단계의 행동으로는 조리시 위생사항, 세척시 맑은 물 사용, 섭취시 주변환경 청결유지, 보관시 안전성 확인, 식품보관상태 파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 관련 선행연구들(김규동 외, 2010; 김정환 외, 2008; 김지은, 2008; 박광희, 2009; 박지연 외, 2009; 장덕기 외, 2009; 정정화, 2008; 진대일,

2009)을 통해 조리시 재료의 신선도 확인이나 조리방법 확인, 저위해식품의 구매, 효율적인 냉장고 사용법 등 조리 전, 조리시, 조리 후에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안전에 관한 행동들이 조사되었다.

2) 한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비자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소비자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과 식품구매행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정숙 외(2005)는 불안감이 높고 불안감에 자녀여부, 학력, 브랜드, 식품첨가물, 원산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윤여은 주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 우려의 관련요인 연구를 통하여 주부들이 식품안전에 대입과 김경자(2013)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하여 식품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절대적인 식품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안전 지식은 부족하며,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불신하고 있음을 밝히고 식품안전사회마련을 위하여 관련주체의 안전준수 강화, 미디어의 책임보도, 소비자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송보경 외(2012), 송유진·유현정(2008), 최미희 외(2010), 유현정·주소현(2012) 등의 다양한 식품안전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회학이나 행정학, 법학 분야에서는 식품안전관리방안, 식품안전관리체계, 식품안전관리법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효진·이혜영(2012)은 식품안전규제 도입과정 분석 연구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내 신호등 표시제를 중심으로 정책 도입과정을 분석하여 소비자, 소비자단체, 기업, 정부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신호등 표시제의 원활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기혜(2011)는 식품안전관리통합화에 대한 장단점과 향후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태오(2008)는 미국의 식품안전규제 법제의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규제방안의 문제점으로 관할 행정조직의 분산, 리스크에 대한 사후 규제적 대응, 표시·정보제공 문제, 자율규제 추세 등을 제시하였다.

3)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연구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다양한 식품위해 사건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Wu, et. al.(2011)는 2008년 발생한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추적시스템과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의 Jiangsu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 1,757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면접 결과 중국소비자들이 식품추적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한 이후 식품추적시스템에 의한 식품인증제에 대한 태도가 매우 호의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육류와 닭고기 등의 식품 뿐 아니라 우유, 달걀, 꿀 등에 대해서도 식품인증제 품목을 사려는 의향이 높다는 것을 밝혔으며 68%의 소비자는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는 식품관련 스캔들이 발생한 중국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루우유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도 이루어 졌는데 Zhou & Wang(2011)은 Nanjing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루우유에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가루우유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염려를 밝혔다. 가루우유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은 소비자의 교육수준,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정부에 대한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Zhou, *et. al.*(2013)는 중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Guangzhou지역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479명의 소비자를 편의표집하여 이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려는 의도에 관련된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유기농 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개인적 가치의 유의미성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식품안전의 이슈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서 중국소비자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hen(2013)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를 공급수준, 식품산업수준, 일반적인 수준의 신뢰로 구별하고 그러한 서로 다른 수준의 신뢰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1,16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급의 수준에서는 생산업자에 대한 신뢰와 유통업자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식품산업수준이나 일반적인 수준의 신뢰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4) 미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연구

미국의 소비자를 바탕으로 한 식품안전 관련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Schafer, *et. al.*(1993)는 1990년대 미국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체감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이 낮은 미국 소비자들이 식생활의 습관을 변화한 경우가 44%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미국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비자 수준에서 Bruhn & Schutz(1999)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소비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

위해 요인에 대한 인식, 식품품목에 대한 안전 의식, 식품안전과 관련된 지식 및 행동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비자가 스스로 느끼는 지식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특정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가 낮은 것을 들어 식품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소비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Brewer & Rojas(2008)의 연구에서는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400여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전에 미국에서 조사된 연구들과 비교하여 이물질이나 식중독 균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과 염려 수준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 뿐 아니라 영양 및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특정 식품(예를 들면, 지방이나 설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유전자변형식품이나 방사선 조작식품, 항생제 포함 식품등이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인증을 받았다면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그러한 식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인 경우도 30%정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소비자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정도를 볼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한·중·미 삼국 비교연구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는 위험인식 측면과 법률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Yoo, *et. al.*(2012)는 한국과 중국,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 상해, 뉴욕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인식에는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각 국가의 소비자들의 안전인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식품위행법을 비교분석한 노병의·빈성오(2005)는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질병의 종류나 세척과 소독방법, 위생시설에 대해 매우 상세히 언급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비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이는 국가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각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역량, 이슈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으나 한국, 중국, 미국의 식품안전 체감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식품안전체감과 소비자의 역량을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안전 수준을 파악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과 식품안전 역량은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4]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과 식품안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2. 자료수집

한국과 중국,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역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국에 거주하는 20-40대 소비자 1,000명, 중국에 거주하는 소비자 500명, 미국에 거주하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과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 척도는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 전문가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개발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식품안전 체감 총 34 문항과 식품역량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안전 체감은 생산유통제공 안전도 6문항, 식품위해우려도 12문항, 식품별 불안도 8문항, 식품표시 신뢰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안전역량은 식품안전지식 7문항, 식품안전태도 5문항, 식품안전기능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 결혼상태 등의 배경변수와 식품안전체감 및 식품안전역량척도를 포함한 설문지는 영어 및 중국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된 설문지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미국의 관련분야 교수 2명에게 번역된 설문지를 검토 의뢰하여 각 문항이 미국의 상황에 맞는 지 등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어 설문지도 중국의 관련분야 교수 3인에게 타당도 및 번역상태를 검토받았다.

3. 변수의 설정

1) 식품안전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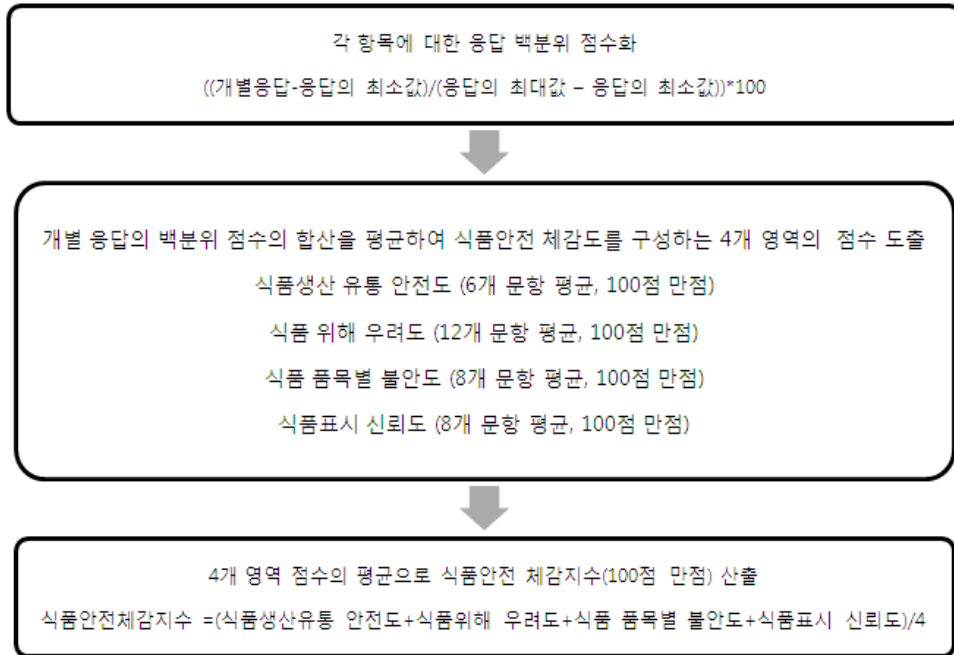
식품안전체감 측정을 위한 척도는 유현정·주소현(2012)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식품안전체감은 생산, 유통 및 제공과정에 대한 안전도, 식품위해에 대한 우려도, 식품 품목별 불안도,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의 생산, 유통 및 제공과정에 대한 안전도는 농축산 농민, 농식품 생산업체, 가공식품 생산업체, 외식업소, 유통업자, 급식업체가 안전

하게 식품을 생산하는 가에 대한 안전도 평가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은 전혀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식품위해에 대한 우려도는 식품안전 사고, 식품첨가물, 식중독균, 중금속, 항생제,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 조사 식품, 발암물질, 잔류농약, 이물질, 위생문제 등의 12개 문항으로 이러한 위해 요인에 대한 우려도를 5점척도로 조사하였다. 식품 품목별 불안도는 수입식품, 패스트푸드, 식육가공품, 냉동식품,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 외식음식, 농약재배식품 등 8개의 품목에 대한 불안도를 5점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국내산, 영양, 원산지, 식품첨가물, 유전자 재조합, 식품 광고 표시 등의 8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각 하위 영역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백분위 표준점수화 하여 각각 생산, 유통 및 제공과정에 대한 안전도, 식품위해에 대한 우려도, 식품 품목별 불안도,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 점수로 합산되었다. 즉 개별 응답자의 응답에서 응답가능 최소수치(1점)를 뺀 값을 응답의 최소값(1점)과 응답의 최대값(5점)의 차이로 나누어 합산한 다음 문항수로 나누어서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이러한 4가지 하위영역 점수는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되어 100점 만점의 식품안전 체감지수로 산출되었다. 이때 식품안전 체감지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의 정도로 식품위해에 대한 우려도와 식품 품목에 대한 불안도는 역코드 하였다. 즉,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높다는 것이 사회에 공급되는 식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수와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 식품안전역량

식품안전역량 측정을 위한 척도는 유현정·주소현(2012)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식품안전역량은 식품안전지식, 식품안전태도, 식품안전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안전지식은 식품구매순서, 채소의 냉장보관, 냉동보관식품의 보존기한, 식품의 해동, 해동방법, 농약제거 방법, 튀김시 주의사항, 조리시 주의사항에 대한 O, X 문항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안전태도는 식품안전 교육의 필요성, 식품위해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강구, 식품위생안전 관련사건에 대한 관심,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 식품 구매시 위해 요소에 대한 관심의 5문항에 대한 태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식품안전에 대한 기능은 식품의 구매, 영양성분 확인, 저장 및 보관, 조리 방법 등 식품을 관리하는 전 과정에 대한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식품안전지식은 올바른 답의 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식품안전태도와 기능도 백분위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식품안전지식, 태도, 기능은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하여 100점 만점의 식품안전 역량지수로 산출되었다. 식품안전 역량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식품안전 역량지수의 산출과정은 <그림 1>의 식품안전 체감지수의 산출과정과 동일하다.



〈그림 1〉 식품안전 체감지수의 산출 과정

3) 응답자의 배경 변수

응답자의 배경변수는 성별, 연령, 연소득, 학력,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 식이요법 유무 등이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전혀 건강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건강하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또는 응답자 가계의 가족원이 치료목적이나 미용목적의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혹은 식이요법을 하는 가족구성원이 없는 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4. 분석 방법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과 식품안전 역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ANOVA, t-test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한국, 중국, 미국 3국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ANOVA와 함께 Duncan test를 이용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였다.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과 식품안전 역량에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한국, 중국, 미국 조사대상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은 수가 조사되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여성소비자의 비중이 많았다. 연령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유사하게 20~40대에 걸쳐 분포되었으나 미국의 경우 40대 응답자가 절반을 차지하여 연령이 다소 높았다. 연소득 분포는 한국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약 4,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약 5,084원, 미국의 경우는 \$57,372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한국, 중국, 미국이 유사하게 나타나 대학교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중국 응답자의 경우 기혼이 다소 많이 표집되어 있으며, 중국의 응답자가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구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2.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도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도에 대한 각 항목의 응답은 <표 2>와 같다. 먼저 식품생산 및 유통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체감은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의 경우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안전 체감도 6문항 중에서 2문항에 가장 낮은 체감도 수준을 보였으며 1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중국과 함께 미국에 비해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한국소비자는 중국이나 미국소비자에 비해 외식업소와 유통업자의 식품 생산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낮았다. 중국소비자의 경우 농식품 생산업체의 안전체감도가 삼국 중 가장 낮았다. 미국소비자는 식품생산 및 유통에 대한 안전 체감도의 모든 문항에서 안전 체감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품위해 우려도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 중국, 미국의 소비자들은 전체 12개 문항의 식품 위해 발생 사항 중에서 항생제 문제와 환경호르몬 문제에 대한 우려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문항에서 차이를 보였다. 위해 발생 요인에 대한 우려도는 중국 소비자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국소비자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에 비해 식품첨가물, 식중독균, 잔류농약, 식품위생문제에 대한 우려도가 높았다. 반면, 한국소비자는 중국소비자나 미국소비자에 비해 식중독균, 유전자 변형식품, 잔류농약문제, 이물질 포함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가 낮았다. 미국소비자는 한국이나 중국소비자에 비해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수준이 낮았으나 나머지 식품위해 발생요인에 대한 우려도는 한국과 중국의 중간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품의 품목별 불안도에 대한 한, 중, 미 소비자의 응답 분석 결과 모든 품목에서 삼국의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소비자의 불안도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소비자는 중국이나 미국소비자에 비해 수입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도가 높았다. 미국소비자의 경우 농약재배식품에 대한 우려도를 제외하고 모든 식품군별에서 한국 및 중국소비자에 비해 불안도 수준

이 낮았다. 중국소비자는 식품 품목별 불안도에서 미국소비자와 한국소비자의 중간 정도 수준의 불안도를 보였다.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는 6개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미국소비자의 신뢰도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한국소비자의 신뢰도 수준이 가장 낮았다. 중국이나 미국소비자에 비해 한국 소비자가 특별히 더 낮은 표시 신뢰도를 보인 항목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로 나타났다.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와 식품광고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이 두 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삼국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단위: %)

구분		한국(N=1,000)	중국(N=500)	미국(N=500)
성별	남성	52.0	54.8	38.4
	여성	48.0	45.2	61.6
연령	20대	30.0	35.8	14.8
	30대	35.3	35.6	35.2
	40대	34.7	28.6	50.0
	평균 연령(단위:세)	34.8(SD 8.23)	33.4(SD 8.21)	38.23(SD 7.73)
연소득(주)	1,000만원~3,000만원 미만	30.1	32.6	28.0
	3,000만원~5,000만원 미만	38.8	28.6	21.2
	5,000만원~7,000만원 미만	19.9	18.6	19.8
	7,000만원 이상	11.2	21.2	31.0
	평균 소득(만원, 위안, 달러)	4,101.67 (SD 2,193.21)	5,083.92 (SD 4720.91)	57,372 (SD 39,180)
학력	고졸 이하	25.6	11.8	19.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19.2	28.6	27.0
	대학교 재학 및 졸업	46.6	49.4	41.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8.6	10.2	12.6
결혼여부	기혼	55.6	70.2	60.4
	미혼	44.4	29.8	39.6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7.2	13.2	14.6
	건강한 편이다	50.1	67.0	41.4
	보통이다	35.4	27.0	36.4
	별로 건강하지 않다	6.9	0.8	6.2
	전혀 건강하지 않다	0.4	2.0	1.4
식이요법	치료 목적	9.7	30.8	10.6
	미용 목적	13.9	19.2	13.6
	하고 있지 않음	76.4	50.0	75.8

※ (주) 한국, 중국, 미국의 소득 범주

한국 ~3,000만원 미만	중국 3,000元 미만	미국 \$30,000 미만
3,000만원~5,000만원 미만	5,000元 미만	\$50,000미만
5,000만원~7,000만원 미만	7,000元 미만	\$70,000미만
7,000만원이상	7,000元 이상	\$70,000 이상

<표 2> 식품안전 체감척도에 대한 한 중 미 소비자의 응답 평균^(주)

식품생산 및 유통에 대한 안전 체감도	한국	중국	미국	F
① 농축산 농민들은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한다.	3.49 a	3.43 a	3.78 b	28.02***
② 농식품 생산 업체는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한다.	3.25 b	3.13 a	3.65 c	60.91***
③ 가공식품 생산 업체는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한다.	2.75 a	2.80 a	3.29 b	75.44***
④ 외식업소는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한다.	2.67 a	2.77 b	3.40 c	148.03***
⑤ 유통업자는 위생적으로 식품을 유통한다.	2.49 a	2.84 b	3.38 c	211.29***
⑥ 급식업체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다.	2.67 a	2.72 a	3.35 b	131.05***
식품위해 우려도	한국	중국	미국	F
① 나는 우리나라에서 식품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3.80 b	3.79 b	3.40 a	41.07***
②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의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문제가 우려된다.	4.01 a	4.20 b	3.94 a	14.71***
③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의 식중독균(food poisoning bacteria) 문제가 우려된다.	3.53 a	3.83 c	3.70 b	20.28***
④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많은 음식들 속의 중금속(food heavy metal) 문제가 우려된다.	3.60 a	3.90 b	3.56 a	23.17***
⑤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의 항생제(antibiotics) 문제가 우려된다.	3.73	3.83	3.72	2.65
⑥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의 환경호르몬(environmental hormone) 문제가 우려된다.	3.85	3.91	3.86	0.77
⑦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의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문제가 우려된다.	3.64 a	3.76 b	3.83 b	7.25**
⑧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의 방사선조사식품(irradiated food) 문제가 우려된다.	3.48 a b	3.78 b	3.57 a	4.86**
⑨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의 발암물질 문제가 우려된다.	3.73	3.97	3.84	11.54***
⑩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의 잔류농약 문제가 우려된다.	3.80 a	4.19 c	3.96 b	33.48***
⑪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에 이물질 포함 문제가 우려된다.	3.60 a	3.72 b	3.77 b	5.38**
⑫ 나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에 위생문제에 대해 우려된다.	3.78 a	4.03 b	3.82 a	14.54***
식품 품목별 불안도	한국	중국	미국	F
① 나는 수입식품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3.88 c	2.96 b	3.15 a	254.27***
② 나는 패스트푸드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3.88 c	3.54 b	3.28 a	79.13***
③ 나는 식육가공품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3.72 b	3.74 b	3.36 a	33.87***
④ 나는 냉동식품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3.60 b	3.51 b	2.72 a	177.31***
⑤ 나는 인스턴트 음식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3.87 c	3.39 b	2.96 a	181.30***
⑥ 나는 가공식품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3.75 c	3.57 b	3.38 a	31.33***
⑦ 나는 외식음식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3.54 b	3.53 b	3.30 a	14.48***
⑧ 나는 농약재배 식품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3.71 a	3.82 b	3.83 b	4.25*
식품 표시 신뢰도	한국	중국	미국	F
① 나는 유통기한 표시를 신뢰한다.	3.61 a	3.68ab	3.76 b	4.79**
② 나는 제조일자 표시를 신뢰한다.	3.65 a	3.55ab	3.71 b	4.20*
③ 나는 국내산 표시를 신뢰한다.	3.32 a	3.26 a	3.56 b	15.09***
④ 나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신뢰한다.	3.32 a	3.31 a	3.52 b	9.53***
⑤ 나는 생산지 및 원산지 표시를 신뢰한다.	3.27 a	3.42 b	3.56 c	17.80***
⑥ 나는 식품첨가물 표시를 신뢰한다.	3.14 a	3.13 a	3.31 b	7.40**
⑦ 나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를 신뢰한다.	2.99	3.11	3.06	2.61
⑧ 나는 식품광고 표시를 신뢰한다.	2.89	2.84	2.90	0.75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평균

*** P<.001, ** P<.01 *P<.05

3.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수준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식품안전지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8개의 문항 모두에서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안전지식이 8개의 OX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국의 정답자 비중을 살펴보았다. 한국소비자는 채소의 보관에 대한 지식, 과일 세척에 대한 지식수준이 중국이나 미국소비자에 비해 낮았다. 중국 소비자는 해동에 대한 지식수준은 한국과 미국소비자에 비해 낮았으나, 채소의 보관, 튀김시 유의사항, 음식 조리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았다. 미국소비자의 경우에는 냉동식품의 보존기간, 튀김시 유의사항, 음식 조리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지식수준이 한국이나 중국소비자에 비해 낮았으나 해동에 대한 지식은 높았다.

식품안전 태도의 경우에도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수준이 모든 문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식품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 식품 위해회피를 위한 노력, 식품위생 안전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탐색, 식품구매 시 위해요인 확인 등 5개 문항 모두에서 중국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한국과 미국소비자에 비해 높았다. 최근 식품위해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 이러한 높은 관심의 배경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표 3> 식품안전 역량척도에 대한 한 중 미 소비자의 응답평균

식품안전지식 ^(주1)	한국	중국	미국	F
① 식품의 올바른 구매순서는, '냉장보관이 필요없는 식품 → 과채류 → 냉장보관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순이다	62.9 a	60.4 a	69.8 b	5.34**
② 채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보관 하는 것이 좋다	13.0 a	59.0 c	47.6 b	235.05***
③ 냉동 보관 식품의 보존기간은 제한이 없다	91.3 b	93.6 b	86.0 a	9.17***
④ 해동한 식품은 다시 재냉동해도 괜찮다.	81.3 a	83.2 a	87.6 b	10.11***
⑤ 해동을 할 때는 냉장해동보다 실온해동이 좋다.	48.9 b	35.6 a	64.0 c	42.06***
⑥ 과일 및 채소 세척시, 식초나 소금, 숯, 베이킹파우더 등을 사용하면 잔류농약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 좋다.	8.1 a	14.6 b	17.0 b	14.07***
⑦ 고온에서 튀김을 할 경우 산패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튀김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해야 한다.	52.7 b	75.8 c	26.2 a	140.66***
⑧ 알루미늄 냄비는 산을 함유한 식품 음식 조리 및 저장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65.7 b	85.6 c	37.0 a	148.51***
식품안전태도 ^(주2)				
① 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14 a	4.68 b	4.13 a	98.79***
② 나는 식품위해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3.15 a	4.11 c	3.31 b	214.10***
③ 나는 식품 위생안전 관련 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다	3.45 a	4.27 c	3.69 b	147.02***
④ 나는 평소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탐색을 자주 한다.	2.95 a	3.93 c	3.06 b	181.98***
⑤ 나는 식품을 구매할 때 위해한 요소가 있는가를 항상 확인한다.	3.21 a	3.09 b	3.12 a	172.47***

<표 3> 식품안전 역량척도에 대한 한 중 미 소비자의 응답평균(계속)

식품안전 기능 ^(주2)				
① 나는 상한 재료는 무조건 버리고 음식을 조리한다.	4.28 a	4.63 b	4.34 a	31.44***
② 나는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재료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한다.	4.17 a	4.40 b	4.21 a	12.53***
③ 나는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조리방법을 확인한다.	3.75 a	3.88 b	3.79 a b	3.29*
④ 나는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조리기구의 위생상태를 확인한다.	3.89 a	4.35 c	4.17 b	48.49***
⑤ 나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4.38 a	4.56 b	4.34 a	11.42***
⑥ 나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4.15 a	4.46 b	4.23 a	23.63***
⑦ 나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다.	3.81 c	3.63 b	3.13 a	77.05***
⑧ 나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유기농인지 확인한다	3.12 b	3.36 c	2.93 a	20.03***
⑨ 나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영양성분 내용을 확인한다.	3.24 a	3.73 c	3.53 b	46.10***
⑩ 나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식품첨가물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3.22 a	3.78 b	3.18 a	61.10***
⑪ 나는 농민과 직거래를 통해 식품이나 식재료를 구입한다.	2.74 b	3.33 c	2.51 a	77.67***
⑫ 나는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재배한다.	1.96 a	2.62 b	1.95 a	61.80***
⑬ 나는 식품위해가 적은 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3.56 a	4.13 b	3.58 a	69.40***
⑭ 나는 장을 볼 때, 생활 잡화를 먼저 구매한 후에 식품을 구매한다.	3.43 b	3.62 c	3.27 a	13.48***
⑮ 나는 냉장고 안을 70%이하로 채워 넣는다.	3.24 b	3.55 c	2.88 a	51.99***
⑯ 나는 뜨거운 식품을 식힌 후, 냉장보관 한다.	3.94 a	4.37 b	3.96 a	34.41***
⑰ 나는 생선과 고기를 냉동할 때, 1회 사용 분량으로 나누어 밀봉한다.	3.61 a	4.13 b	3.66 a	39.51***

※ ^(주1) 응답자 중 정답자의 비중(단위:%)

^(주2) 전혀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평균

*** P<.001, ** P<.01 *P<.05

식품안전 기능 17개 문항도 모두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의 경우 조리기구의 위생상태 점검, 식품 구매전 영양성분 확인에 대한 기능은 중국이나 미국소비자보다 낮았으며 구매 시 원산지 확인에 대한 기능은 중국이나 미국 소비자보다 높았다. 중국소비자의 경우 대부분의 기능이 한국이나 미국소비자에 비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기능 영역은 없었다. 미국소비자의 경우 원산지 확인, 유기농 확인, 생산자와 직거래, 쇼핑시 구매순서, 냉장고 관리의 영역에서 한국이나 중국소비자보다 낮은 기능수준을 보여주었다.

4.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지수와 식품안전 역량지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지수와 식품안전 역량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는 각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의 점수도 나타나 있다. 먼저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은 미국소비자가 100점 만점에 49.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41.91점, 중국은 42.83점으로 미국보다 낮았다. 식품안전 체감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의 점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식품 품목별 불안도 점수가 낮아서 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 체감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식품 품목에 대한 불안도 점수가 한국이나 중국보다 높아서 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 체감이 한국과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높았던 만큼, 식품의 생산유통제공에 대한 안전도와 식품 표시에 대한 신뢰도, 식품 품목별 불안도에서 미국 소비자의 안전체감도가 한국과 중국소비자에 비해 높았다. 중국의 경우에 식품 위해에 대한 우려도가 삼국 중에서 가장 낮아, 식품 위해에 대한 안전 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역량지수를 살펴보면 중국의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72.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58.81 점, 미국, 58.95점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 비해 식품안전지식, 식품안전태도, 식품안전기능 점수가 모두 높았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미국소비자에 비해 모든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미국은 식품안전 태도가 한국보다 높았고 중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 한국, 중국, 미국의 식품안전 체감지수와 식품안전 역량지수

	한국(N=1,000)	중국(N=500)	미국(N=500)	F
식품안전체감지수	41.91 a	42.83 a	49.39 b	71.723***
생산유통제공안전도	11.80 a	12.18 a	15.46 b	158.182***
식품 위해우려도	8.04 b	7.03 a	7.84 b	9.756***
식품 품목별불안도	7.86 a	9.33 b	10.95 c	93.175***
식품 표시신뢰도	14.21 a	14.29 a	15.14 b	8.089***
식품안전역량지수	58.81 a	72.23 b	58.95 a	212.181***
식품안전지식	17.66 a	21.16 b	17.52 a	64.046***
식품안전태도	19.84 a	26.79 c	20.52 b	261.284***
식품안전기능	21.31 a	24.28 b	20.91 a	82.299***

※ *** P<.001

5. 소비자의 배경 변수에 따른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지수

소비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지수에 대한 분석은 <표 5>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 남성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여성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지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한국과 미국의 경우 여성소비자가 체감하는 식품안전 수준은 남성소비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식품안전 체감지수의 차이는 한국소비자의 경우에만 나타났으며 한국소비자의 경우 20대의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30대나 40대 소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30대, 40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20대 소비자에 비해 낮았다. 한국, 중국, 미국의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지수는 응답자의 가계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식품안전 체감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소비자의 경우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식품안전 체감지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국소비자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체감지수가 다른 응답자들의 체감지수보다 낮았다. 식이요법에 따른 식품안전 체감지수는 미국소비자의

경우에만 차이를 보였는데 치료목적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가게 구성원이 있는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낮았다.

<표 5> 소비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식품안전 체감지수

변수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성별	남성	42.91	43.70	52.20
	여성	40.83	41.78	47.64
	t	2.955*	1.940	3.782***
연령대	20대	43.43 a	43.49	48.84
	30대	41.10 b	42.84	49.80
	40대	41.42 b	42.01	49.27
	F	4.052***	0.700	0.161
소득	3000만원미만	41.75	42.80	47.88
	5000만원미만	42.38	43.18	49.78
	7000만원미만	40.89	43.56	49.30
	7000만원이상	42.52	41.79	50.56
	F	0.917	0.479	1.064
교육수준	고졸이하	43.33	41.60	48.72
	전문대 졸업 이하	41.48	43.18	48.03
	대학교 졸업 이하	41.38	42.77	50.62
	대학원 재학이상	41.54	43.60	49.33
	F	1.866	0.363	1.173
결혼상태	기혼	41.55	42.28	49.50
	미혼	42.36	44.14	49.22
	t	-1.146	-1.906	0.231
주관적 건강	매우건강하다	43.93	47.88 b	50.76
	건강한편이다	42.39	42.65 b	50.77
	보통이다	41.23	40.42 b	47.96
	건강하지않다	39.91	38.19 a	46.13
	F	2.321	6.854***	2.566
식이요법	치료목적	42.28	42.72	41.54 a
	미용목적	42.49	43.60	47.40 b
	하고있지 않음	41.76	42.62	50.85 b
	F	0.311	0.278	13.244***

※ *** P<.001, ** P<.01 *P<.05

6. 소비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지수

소비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식품안전 역량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여성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남성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지수보다 높았으나 중국과 미국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 나타났는데 한국과 중국 모두 20대 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30대와 40대 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지수보다 낮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식품안전 역량지수의 차이는 중국소비자의 경우에만 나타났는데 중국의 경우 다른 교육수준 집단에 비해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의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른 식품안전 역량지수의 차이는 한국, 중국, 미국에서 모두 나타났는데 세 나라 모두 기혼인 경우의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미혼인 경우와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식품안전 역량지수의 차이도 세 나라에서 모두 나타났다. 모든 나라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할수록 식품안전 역량지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식이요법 유무에 따른 식품안전 역량지수도 세 나라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 가계에 비해 어떤 이유로든 식이요법을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계의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식품안전 역량지수

변수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성별	남성	56.82	71.66	57.42
	여성	60.96	72.92	59.90
	t	-5.301***	-1.287	-1.895
연령대	20대	56.53 a	68.64 a	57.33
	30대	60.22 b	74.14 b	58.97
	40대	59.34 b	74.32 b	59.41
	F	7.626***	15.786***	0.619
소득	3000만원미만	55.32 a	70.35 a	58.91
	5000만원미만	59.06 b	70.97 a	58.21
	7000만원미만	61.82 c	74.75 b	58.30
	7000만원이상	61.98 c	74.52 b	59.90
	F	14.698***	5.547***	0.400
교육	고졸이하	57.76	71.44 a	56.21
	전문대 졸업이하	58.02	70.01 a	59.41
	대학교 졸업이하	59.73	73.71 b	59.38
	대학원 재학이상	58.68	72.18 a	60.69
	F	1.705	3.597**	1.643
결혼상태	기혼	60.84	74.07	60.65
	미혼	56.27	67.88	56.35
	t	5.845***	5.851***	3.334***
주관적 건강	매우건강하다	62.54 b	75.68 c	63.73 b
	건강한편이다	60.17 b	72.60 a b	59.02 a
	보통이다	57.03 a	68.92 b a	57.39 a
	건강하지않다	54.43 a	67.07 a	56.81 a
	F	9.762***	6.110***	3.888***
식이요법	치료목적	62.40 b	74.22 b	65.39 b
	미용목적	62.00 b	74.33 b	63.60 b
	하고있지 않음	57.77 a	70.19 a	57.21 a
	F	11.366***	8.939***	12.648***

※ *** P<.001, ** P<.01 *P<.05

7. 식품안전 체감과 식품안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품안전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체감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자의 배경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앞서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식품안전 체감지수의 비교와 더불어 각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다변량 분석에서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이 분석에서는 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수준과 체감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역량을 독립변수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면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졸과 비교하면 고졸인 경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높은 경우,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고졸과 비교할 때 대졸인 경우에는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식품을 안전하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결혼상태, 식이요법은 식품안전 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할수록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높았으나 다른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황에서 식품안전 역량 지수가 낮을수록, 남성인 경우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치료목적으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의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낮았다. 연령, 소득, 학력, 결혼상태와 주관적 건강 등은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국, 중국, 미국의 식품안전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변수	한국(N=1,000)		중국(N=500)		미국(N=500)	
	b	Beta	b	Beta	b	Beta
식품안전 역량	-.238***	-.267	-.134**	-.132	-.356***	-.383
성별						
남성	1.640*	.073	1.671	.074	4.015***	.149
연령(연속변수)	-.134*	-.099	-.007	-.005	.024	.014
소득(연속변수)	3.5E-04*	.069	-7.2E-05	-.031	1.9E-05	.058
학력						
(기준=대졸)						
고졸이하	2.596**	.102	-1.497	-.043	-1.551	-.047
전문대이하	.395	.014	-.329	-.013	-1.782	-.060
대학원이상	-.155	-.004	.621	.017	-1.170	-.030
결혼상태						
기혼	1.676	.075	-.749	-.031	1.555	.058
주관적건강(5점척도)	1.722***	.115	3.102***	.196	1.866**	.122
식이요법						
(기준=안함)						
치료목적	2.064	.055	.377	.016	-5.313**	-.125
미용목적	1.621	.050	1.286	.045	-.918	-.024
상수	50.074***		40.535***		60.731	
F, R2	9.455***	0.095	3.031**	0.064	12.936***	0.226

※ ***P<.001,**P<.01,*P<.05

식품안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역량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자의 배경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한국의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인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미혼과 비교할 때 결혼한 경우, 주관적 건강이 양호할수록,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 가계와 비교할 때 치료목적이거나 미용목적의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에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이나 교육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8> 한국, 중국, 미국의 식품안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변수		한국(N=1,000)		중국(N=500)		미국(N=500)	
		b	Beta	b	Beta	b	Beta
성별	남성	-4.07***	-.163	-1.12	-.051	-1.30	-.045
연령		.07	.048	.11	.079	.11	.059
소득		.001***	.145	-6.85E-05	-.029	3.35E-05	-.093
학력 (기준=대졸)	고졸이하	-1.12	-.039	-2.45	-.072	-2.65	-.074
	전문대이하	-1.11	-.035	-2.73*	-.112	.18	.006
	대학원이상	-1.35	-.030	-.79	-.022	1.27	.030
결혼상태	기혼	2.98**	.118	4.57**	.191	4.58***	.159
주관적건강		2.58***	.153	2.50***	.162	2.79***	.170
식이요법 (기준=안함)	치료목적	4.37**	.103	3.49**	.147	9.47***	.207
	미용목적	4.05***	.112	3.03*	.109	6.50***	.158
상수		43.77***		56.22***		42.80***	
F, R ²		15.086***	0.132	7.888***	0.139	6.274***	0.114

※ *** P<.001, ** P<.01 *P<.05

중국의 경우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와 비교할 때 대졸인 경우, 미혼과 비교할 때 결혼을 한 경우, 주관적 건강이 양호할수록,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 가계와 비교할 때 치료목적이거나 미용목적의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에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소득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미혼과 비교할 때 기혼인 경우, 주관적 건강이 양호할수록,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 가계와 비교할 때 치료목적이거나 미용목적의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에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체감 및 안전역량 모두에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도 및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탐색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체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의 설명력이 미국 22.6%에 비해 한국과 중국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점은 한국사회와 중국사회가 미국사회와는 다른 안전체감의 인과모형을 구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글로벌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의 자국 내 노력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특히 식품안전의 분야에서는 각국이 처해있는 식량의 해외의존도와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 장벽 없는 무역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식품안전 상황 뿐 아니라 교류하고 있는 해외의 식품안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식품안전의 수준과 소비자의 주체적인 능력으로서 식품안전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과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국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과 식품안전 역량이 사회적인 시스템, 식품을 둘러싼 환경, 식품이 유통되는 문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미국은 식품이 생산, 유통되고 소비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시스템, 환경,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중국의 경우에는 식품과 관련된 스캔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식품안전 체감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인 식품위해에 대한 안전체감 수준이 중국소비자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소비자는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식중독균, 중금속 등에 대한 우려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소비자의 높은 식품안전 역량수준과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관련 위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중국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의 수준이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 특히 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 체감이 낮기 때문에 식품을 구입, 취급, 조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가장 높은 식품안전 체감수준을 보였다. 미국소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생산이나 유통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체감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식품 품목에 대한 불안도가 낮았고, 식품 표시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이는 미국의 식품 공급에 대한 선진화된 시스템과, 표시제도에 대한 역사, 식품을 취급하고 제공하는 업체의 관리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모두 식품안전 체감수준이 식품안전 역량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 태도, 기능의 수준이 사회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식품안전 체감수준과 식품안전 역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식품안전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밝혀져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남성의 식품안전 체감수준이 여성의 식품안전 체감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여성이 식품안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타겟으로 삼아야 하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여성이 체감하는 식품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식생활 및 식품의 관리 등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변량분석 결과 식품안전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밝혀졌는데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삼국 중에서 전반적인 식품안전 수준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중국에서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결과이다. 식품에 대한 안전과 개인의 건강은 밀접한 관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안전과 건강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 효과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식품안전 체감의 차이와 함께 식이요법에 따른 식품안전 체감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식이요법을 하는 가계구성원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치료목적의 식이요법을 하는 가계구성원이 있는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구성원 중에서 치료목적으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가계는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을 것이며 관심과 민감도 또한 높을 것이다. 전반적인 식품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계의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 중국, 미국 모두 식품안전역량 수준이 낮을수록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높아, 역량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느끼는 식품안전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은 지식, 태도,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역량수준이 높은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더불어 높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체감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지식을 가지고 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행동을 하는 소비자의 경우 막연하게 식품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낮을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식품에 대한 안전요구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역량향상에 따른 기대수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성별, 소득,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 식이요법 유무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미국의 경우는 결혼상태, 주관적건강, 식이요법 유무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식품안전 역량이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역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 식이요법 유무는 한국, 중국, 미국 모두 동일한 영향을 미쳤는데 기혼인 경우,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치료목적이나 미용목적의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 식품안전 역량수준이 높았다.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기능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식품안전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는 것은 앞서 중국의 식품안전 체감수준과 주관적 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와 같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 모두가 증가될 수 있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이요법은 그것이 치료목적이건 미용목적이건 소비자의 식품안전 역량과 긍정적인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요법을 위해서 수집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는 직접적인 식품안전지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식이요법을 위한 행동은 식품안전

태도 및 식품안전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영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소비자의 경우 채소의 보관이나 잔류농약 제거 세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의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식품안전 역량수준이 낮은 남성이나 미혼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증가할 필요성도 보인다.

한국, 미국, 중국은 상호간의 무역 교류 규모를 고려할 때 상호 소비자에 대한 이해는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 및 역량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식생활 관련 분야의 교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식품안전체감척도와 식품안전역량척도는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에 의해 검토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각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유용성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소비자의 경우 중국 일반적인 소비자와 비교할 때 한국이나 미국소비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국내에서 소득수준이 높을 집단을 수 있으므로 직접 비교하는 것에 제한점이 따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효진, 이혜영. 2012. 식품안전규제 도입과정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331-354.
- 김규동, 이정운. 2010. 식품안전 관련 구매행동 및 정보요구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9(3): 392-398.
- 김정환, 유태용. 2008. 어린이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행동평가. 한국조리학회지. 14(2): 249-261.
- 김지은. 2008. 부산시내 일부 주부들의 식품사고 발생 후 식품의 안전성과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인식 정도.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오. 2008. 미국 식품안전규제법제의 체계와 쟁점. 경제규제와 법. 1(2): 263-288.
- 노병의, 빈성오. 2005.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식품위생법 비교.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20(2): 103-113.
- 박광희. 2009.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 최은희, 최정화, 심상국, 박형수, 박기환, 문혜경, 류경. 2009. 소비자의 식품안전 인지도와 안전 행동 평가.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24(1): 1-11.
- 송보경, 이은경, 김건희, 박기환. 2012.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연구.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 송유진, 유현정. 2008.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분석. *소비자학연구*. 19(3): 215-244.
- 유현정, 주소현. 2012.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 및 역량척도 개발 연구. *소비자학연구*. 23(4): 79-104.
- 윤영임, 김정자. 2013. 식품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5-31.
- 이데일리. 2013. 13억 중국의 식량고민.. '해외의존' 느끼는데 낭비 더 커져. 2013. 5. 27일자.
- 장덕기, 박호정. 2009. 농식품의 안전성 중시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구매 행태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3(3): 563-582.
- 정기혜. 2011. 우리나라 사회기반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의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79: 51-63.
- 정정화. 2008. 함평지역 고등학생의 식품위생 및 안전의식 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대일. 2009. 식품 위해에 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희, 윤수진, 안영순, 서갑중, 박기환, 김건희. 2010. 서울지역 소비자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9(10): 1555-1564.
- 최정숙, 전혜경, 황대용, 남희정. 2005. 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우려의 관련요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4(1): 66-74.
- Baker, Gregory A. 1999. Consumer Preference for Food Safety in Fresh Apples: Market Segments,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Marketing Opportunity.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4(1): 80-97.
- Brewer, M. S. and M. Rojas. 2008. Consumer Attitudes toward Issues in Food Safety. *Journal of Food Safety*. 28: 1-22.
- Bruhn, Christine M. and Howard G. Schutz. 1999. Consumer Food Safety Knowledge and Practice. *Journal of Food Safety*. 19: 73-87.
- Chen, Weiping. 2013.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Trust on Consumer Perceptions of Food Safety: An Empirical Study of Consumers in Beijing Municipality, China. *China Agricultural Economic Review*. 5(1): 43-65.
- Schafer, E., R. B. Schafer, G. L. Bultena, and E. O. Hoiberg. 1993. Safety of the US Food Supply: Consumer Concerns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7: 137-144.
- Wu, Linhai, Xu Lingling, and Gao Jian. 2011. The Acceptability of Certified Traceable Food among Chinese Consumers. *British Food Journal*. 113: 519-534.
- Yoo, H. J., E. Song, and R. Scharff. 2012. Perceived Risk and Safety-Seeking Behavior of Consumers in Seoul, Shanghai and New York.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19(4): 133-150.
- Zhou, Yanfeng, Thøgersen John, Ruan Yajing, and Huang Guang. 2013. The Moderating Role of

Human Values in Planned Behavior: The Case of Chinese Consumers' Intention to Buy Organic Food.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30(4): 335-344.

Zhou, Yingheng and Wang Erpeng. 2011. Urban Consumers' Attitudes towards the Safety of Milk Powder after the Melamine Scandal in 2008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s. *China Agricultural Economic Review*. 3(1): 101-111.

유현정: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정학 박사(소비자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만족모델: 20, 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2001), 현재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세무 전공분야는 소비자 행동, 소비자교육 및 정책 등이며, 소비자와 생활안전(공저, 2011),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가지 시선(공저, 2011) 등의 저서와 “식품위생정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따른 소비자반응”(2013), “Perceived Risk and Safety-Seeking Behavior of Consumers in Seoul, Shanghai and New York”(2012)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 (yoohj@chungbuk.ac.kr).

주소현: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버지니아텍에서 소비자경제학분야로 박사학위(논문: Personal financial wellness and worker job productivity)를 받았다. 이후 미국 텍사스텍대학에서 개인재무설계학과 교수의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하며 개인재무설계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개인재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이 재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깊다. 주요 연구주제는 financial wellness, financial wellness와 생산성, 재무교육의 효과, 은퇴설계 및 관련요인, 연금화 이슈 등이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에 교수로 재직중이다(sohyunjoo@ewha.ac.kr).